

수능 등급 불안... 고3 '대입 공황'

수험생 등급 알 수 없어 진학지도 혼선 수시 대거 몰리고 입시학원 문의 빗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혼란에 휩싸였다.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등급제(1~9 등급)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없어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남대·조선대가 동시에 수시 모집 전형 멤버를 실시하는 오는 29일은 광주·전남 수험생들의 고민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수시에 학과별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능을 잘 치른 학생들은 멤버를 포기하고 정시에 도전해도 되지만, 정확한 등급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어려워도 저려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고3 교실은 카오스=학부모·진

학 지도교사·수험생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개채점으로 원점수를 나왔는데도 전형에서 적용되는 등급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상위권의 경우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릴 수 있어서 더 난감하다. 등급을 점수로 환산했을 때 등급에 따라 많게는 20점까지 차이가 난다. 수리 영역의 경우 1등급과 2등급의 등급간 점수 차가 서울대는 5점, 연세대는 4점, 고려대는 8점(수리가)과 6점(수리나) 등으로 천차만별이다. 또 영역별 가중치는 대학별로 모집요강을 세분화하고 있다.

서석고 김재후 진학실장은 "대학별 고사도 논술이나 면접만 보거나,

이 지원해 경쟁률이 68.1대1이었다. 우 실장은 "수시에서 소신 지원을 했다면 수능의 점수가 아무리 잘 나왔더라도 우선(수시면접) 시험을 치르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입시학원으로 문의 쇄도=광주 대성학원 우부남 진학실장은 "재수생은 물론이고 고3 학생까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등급제의 특성상 등점자가 워낙 많아 조언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수능 성적을 배제한 수시 모집으로 대거 몰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최근 원서접수를 마감한 서강대의 경우 417명 모집에 1만9천50명이 몰려 45.7대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숙명여대도 121명 모집에 2천421명이 지원, 20대1을 기록했으며, 한국외국어대(서울캠퍼스)는 126명 모집에 8천585명

을 다 보는 곳들이 있어서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교에서는 입시 학원이 배포한 배치표를 놓고 상담하지만 정확하다고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차분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적 나올 때까지는 관망=서울 시교육청은 26일 대학별 예상 등급 커트라인을 발표하려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점 차로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민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학교사들은 설불리 예상치를 추정하기보다 다음달 12일 수능 성적 공개일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광주 대성여고 김창현 진학실장은 "이런 식의 혼란이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등급제를 하되 표준점수를 두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고액 논술과외 특별 단속키로

광주·전남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2008학년도 1월까지 고액 논술이나 개인과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수능 종료와 더불어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원 수요 증가를 타고 고액 수강료 징수, 하위·과대 광고, 불법 개인과외 등이 성행 할 것을 대비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의 이번 방침은 수능 등급제가 처음 적용돼 수능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줄고 일부 주요 사립대는 내신의 영향력을 계속 약화시키는 전형 계획을 내놓으면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논술에 대비한 고액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교습정지·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과 고발·세무서 통보·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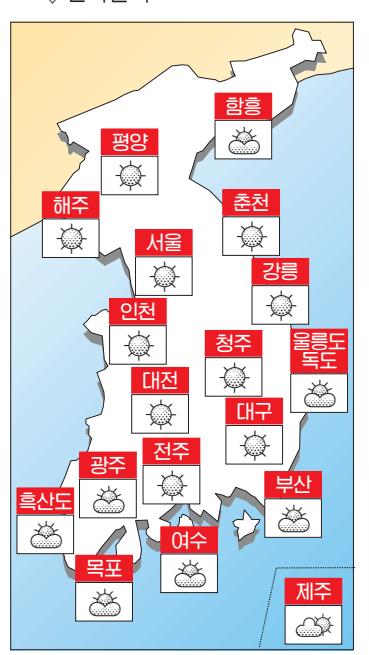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쌀쌀한 바람

가끔 구름이 많이 끼었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광주	구름 많음	2~9°C
여수	구름 많음	5~9°C
완도	구름 많음	6~10°C
구례	구름 많음	4~9°C
해남	구름 많음	-1~10°C
장흥	구름 많음	0~10°C
고성	구름 많음	2~12°C
순천	구름 많음	-1~10°C
광주	구름 많음	2~9°C
전주	구름 많음	3~10°C
남원	구름 조금	0~9°C
회천	구름 조금	-3~9°C
진주	구름 많음	7~8°C

11월 27일
(음 10월 18일)
◇전국날씨



날짜	28(수)	29(목)	30(금)	12/1(토)	2(일)	3(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11	2/11	1/11	2/12	2/12	1/13

교통사고 없는 세상 만들자

광주일보·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 공동 캠페인

보험사기 줄이면 보험료 5% 낮아진다

⑧ 고의 교통사고 매년 증가

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중고 승용차에 올라탄 체 일방통행 위반차량을 기다리던 중 역주행하는 김모(26)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정면 충돌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하고 등숙한 손씨로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차량수리비 등 2천3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을 것이다. 김씨 등은 보험금 청구가 10여 차례 잇따랐을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보험사기의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1천500만 운전자들이 보험사기로 인해 1인당 연평균 4만원 정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다른가입자의 보험금 부담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빚고 있다"며 "보험사기 줄면 보험료가 5%까지 낮아질 것"이라 고 전망했다. /인현주기자 ahj@

연세대 편입학 '+' 표시 괴물건

진위·출처 조사

연세대는 2004년 편입학 전형에서 특히 의혹 단서로 의심되는 '괴물건'이 발견됨에 따라 진위와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26일 "의과대학 2002학번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2004학년도 편입생 명부 가운데 특정 인의 이름 앞에 별도 표시가 붙은 문건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입학처나 의과대학에서는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위조되지 않았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학부모 회장을 지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아들인 K씨는 외국대학에서 시간제 학점을 취득해 편입학 자격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이는 전국 에이즈 환자 수 5천155명의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3명, 30대 22명, 50대 14명이었으며 10대와 60대도 각각 2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85명으로 여성 5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감염 경로 면에서는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8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전남지역 에이즈 환자는 지난 2004년 말 현재 80명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에이즈 환자 90명

3년새 3배 가량 늘어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에이즈(AIDS) 환자가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시가 오는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3명이던 광주 지역 에이즈 환자는 2004년 43명, 2005년 57명, 지난해 83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90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에이즈 환자 수 5천155명의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3명, 30대 22명, 50대 14명이었으며 10대와 60대도 각각 2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85명으로 여성 5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감염 경로 면에서는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8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전남지역 에이즈 환자는 지난 2004년 말 현재 80명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영화 '화려한 휴가' 고소 반발

5·18 단체 "진실 호도 말라"

전직 관료와 예비역 장성 28명이 5·18 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가 "공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6일 검찰에 고소하자 5·18 관련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수만(사) 5·18민주유공자유죽회장은 26일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적반하장(駁反荷杖)"이라며 고소인과

'전사도'(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등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5·18 기념재단(이사장 이홍길) 김찬호 국제협력팀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동"이라며 "학살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역사적 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민병돈 전 특전사령관 등은 "영화 '화려한 휴가는' 5·18 당시 군인이 양민을 학살하는 것처럼 묘사해 군의 사기를 저하하고 예비역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제작자와 감독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국내외 전시회에서 전시·설치 부문 최우수상 수상

전기·화재에도 면밀이 있습니다.

전기·화재에도 면밀이 있습니다.